

‘책 읽는 문화’ 선도 독서갈증 풀었다

■ 개관 1년 맞는 전남도립도서관

47만명 이용...326권 읽은 초등생 다독왕도

도서·산간 오지 ‘책책빵빵’ 이동도서관 인기

하릴없이 텅 빈 학교 운동장을 배회하던 아이들과 퇴근 후 TV 시청에 몰두하던 부모들이 전남도립도서관이 생긴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얼마의 손을 잡고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은 편백나무 향 가득한 어린이실에서 책을 보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 초등학생은 지난해 326권의 책을 읽었고, 100권 이상 독서를 한 도서관 이용자도 511명에 달했다. 이처럼 전남도립도서관(관장 최동호)이 문을 연지 1년 만에 47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전남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았다.

전남도는 10일 “지난해 1월 12일 문을 연 전남도립도서관의 하루 이용객이 1420여명을 기록하는 등 지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60개 공공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적인 도립도서관은 지난해 ‘책 읽는 전남’을 선포한 뒤 특정 책을 선정해 함께 읽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등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올해의 책 4권을 선정해 함께 읽고 독서 토론을 했으며, 저자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 전국 최초로 독서동아리나 가족의 책읽기를 발표하는 ‘제1회 독서동아리·독서가족 발표대회’를 여는 등 이색 독서 캠페인을 펼쳤고, 도서관 1층에서는 지역 화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16차례 열렸다.

이런 프로그램 덕분에 1년 만에 도서관 회원은 2만7446명으로 늘었고, 대출 도서도 38만5800여권에 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입소문이 나면서 책 읽어주기, 구연동화 등의 자원봉사도 이어졌다.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자원봉사자들



10일 오전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이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다. 도서관 건립 1년만에 한 초등학생은 326권의 책을 읽었고, 100권 이상 독서를 한 도서관 이용자도 511명에 달했다. <전남도립도서관 제공>

은 매주 화·토요일 어린이구연동화, 역할극 등의 재능 기부에 나섰다.

도립도서관은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책을 차에 싣고 오지의 지역민 곁으로 다가가 이 이동도서관 ‘책책빵빵’도 운영한다. 이동도서관이 없는 14개 군의 섬, 산간, 오지의 도서 소외지역을 대상

으로 매주 2~3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책을 빌려줄 계획이다.

최동호 관장은 “개관 1년 만에 10만권의 책을 보유하게 됐고 여름철에는 연장 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지역민이 도서관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해 새 설계

이동진 진도군수

“항구·도로 개설 민자유치 주력”

“올해는 무엇보다 열악한 항구, 도로 등 진도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공직자와 군민들이 진도의 도약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10일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군민들 곁에 한발 더 다가가 함께 나아가는 한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민선 5기 들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 유치와 관광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한 이 군수는 앞으로도 보배섬 진도의 발전을 위해 안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 유치를 더욱 구체화할 생각이다. 진도항 건설사업에 나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서방항 재정비사업, 국도 18호선 진도읍~진도항 간 공사 등을 상호 연계하는 한편 해안일주도로 개설사업에도 나선다.

청음~취미, 와우~보전 구간을 2014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초평~송군 간 등 미개설 구간도 조기에 착공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또 녹진~금골 간 국도 18호선 확장공사, 진도대교 성능개선사업의 준공을 최대한 앞당기고, 군내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진도군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과 공사가 지역민의 소득 향상과 직결되도록 관내 업체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자본 유치의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 군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피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상·전북 수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국자본 유치를 구체화해 나가고, 인공섬갑자·스포츠토포종합타운·해양리조트·조류발전 등 관련 사업도 올해 가시화한다는 것이 이 군수의 목표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 박차

진도문화예술재단 설립

축림 등 4개 권역 재정비

는 모든 사업과 공사가 지역민의 소득 향상과 직결되도록 관내 업체와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자본 유치의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 군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피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상·전북 수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국자본 유치를 구체화해 나가고, 인공섬갑자·스포츠토포종합타운·해양리조트·조류발전 등 관련 사업도 올해 가시화한다는 것이 이 군수의 목표다.

농어가의 소득 증대의 토대가 될 친환경 농수산업 육성과 식품의 안전성 증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친환경·식품 안전성이 경쟁력이 되는 만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고소득 유기농 특용작물 재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군수는 이와 함께 “강강술래와 진도아리랑에 이어 우리의 고유한 상·장례 의식을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문화예술특구 지정과 진도문화예술재단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이 지역발전의 큰 기여하고 있는 만큼 민간역량을 강화시켜 신비의 바닷길 축제 세계화, 명랑대첩축제 위상 정립, 진도문화예술제 등을 그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립 남종화 역사관과 해저유물 전시관 유치, 향토문화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작품 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축림·동백마루·둔치·금골 등 4개 권역 종합정비사업, 임해·조도면 소재지 정비사업, 새로 지정된 지산면 소재지·오일시 권역 종합정비사업 등 군민 삶의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올해는 희망도 많고 할 일도 많은 1년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도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을 다하는 한해, 후회 없는 2013년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진도=박영민기자 hypark@

각종 경시대회 휩쓴 여수 중고생

수학·영어 컨테스트 등 두각...명문학교 자리매김

문강학원(이사장 김영식) 산하 여수 종고중학교(교장 박병순)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각종 경시대회를 휩쓸어 전남 최고 명문 중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일 여수종고중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 교육청 주관 제 31회 수학경시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한 4명 중 금상을 수상한 하진호(16)군 등 3명이 도 대회에 참가해 금상·은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또 60여명의 영어재능 우수자들이 참

가한 제3회 여수시 영어 컨테스트에서는 3학년 윤영인(16)군 등 2명이 은상과 동상을 수상, 부상으로 해외연수의 기회를 갖게 됐다.

전남도에서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캠프에서 성적우수자로 선정된 2학년 박상욱(15)군은 겨울방학 동안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 주립대학 현지에서 4주간의 어학연수 기회를 얻었다. 제25회 기술경진대회에서는 3학년 김성호(18)군이 제도분야에서 금상을 차지, 단일학교로

서는 드물게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밖에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금상, 제42회 응급조치 경연대회 대상과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전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체육 분야에서도 제13회 전라남도 협회배 학교 골프대회 2위, 제4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복싱부 문은배 등 을 차지했다.

박병순 교장은 “창의·인성 함양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교육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인재 육성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며 “60년이 넘는 전통의 여수종고 중이 다른 학교의 선도적 모델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서기관급 기술직 확대 낙하산 인사 반발

광양시공무원노조 연좌 농성 돌입

광양시공무원노조가 전남도의 인사와 기술직 확대에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광양시 도시과장과 건설과장 등 신설직 사무관은 평생 근무해도 서기관급 국가 승진이 묘연하다”면서 “이는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시·군에 서기

관을 보내 국장 자리를 차지하는 폐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광양시의 경우 전남도의 낙하산 인사가 서기관과 사무관을 합해 9명으로, 인구가 2배 수준인 여수·순천보다 많다”며 “광양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16년4개월이나 걸려 전남도의 8년8개월보다 2배나 길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전남도와 시·군간 상설 협의체를 운영해 기존 낙하산 간부 공무원들을 모두 전남도로 복귀시키는 인사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광양시는 지난해 인구 15만명 달성을 계기로 조직개편 및 공무원 98명 증원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최근 24명만 증원된 것으로 개편안이 승인되지 하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행안부 정원조정 최종안은 현원 878명에서 24명이 증원된 902명으로, 광양시는 이에 따라 4급 6명, 5급 55명, 6급 189명으로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과 함께 4과 10타당이 늘었다.

광양시는 이번 개편으로 신설된 4급 환경관리센터소장을 행정직과 기술직 특수직렬로 전남도로 승인을 신청했으나 전남도가 행정직으로 결정하자 기술직 확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양=박영민기자 py4079@

■ 새 얼굴

“섬지역 정전없게 전력공급 최선”

정환기 한전 신안지사장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을 감한 해 정전 없는 전력의 공급을 통해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신안지사 신임 정환기(54) 지사장이 최근 부임했다. 정 지사장은 취임사에서 “소속직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조직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발전하는 신안 건설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 지사장은 취임사에서 “소속직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조직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발전하는 신안 건설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박종진의
채도난마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뉴스A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이영돈PD의
먹거리X파일

매주 금 밤 11시

CHANNEL A

박종진 |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장
기자

이영돈 | 채널A 제작담당상무
프로듀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